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중심으로*

Successful Ageing among the Elderly :
Influence of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유영미**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성희***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uncheon National Univ.
Master You, Yong-Mi
Dept.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
Professor Kim,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successful age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focusing on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o improve elderly's quality of life. The 300 respondents, all participants in programs at facilities for the elderly, were interviewed via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for successful ageing among the participants was above average. Second, the level of successful ageing varied according to income and religion. Third, the common variables affecting active or emotionally successful ageing were support from friends,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and gender. It is suggested that the community should be informed of the importance of support from family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s the elderly still want the support of family despite family's reduced role.

Key Words :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가족지지(support from family), 친구지지(support from friends),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유영미(mago1915@hanmail.net)

*** 교신저자: 김성희 (ksh@suncheon.ac.kr)

I. 서론

노인인구는 2018년 14.3%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2008년 정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사회가 분담해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비용 부담 증가로 지역사회공동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커뮤니티케어로 정책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8).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기대수명도 2006년 78.7세에서 2016년 82.3세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 연장된 노년기 동안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과 안녕을 누리고자 하는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돌봄의 주체는 가족에서 정부, 커뮤니티케어로 변화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서울시복지재단, 2018). 지역사회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이 활성화되어 재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재가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신체적 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지속적인 지적활동으로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지역노인에게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성공적으로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란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연장된 노년기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하며 활동함으로써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Rowe & Kahn(1997)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과 장애를 예방해야

하고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발휘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상태를 성공적 노화라 하였다. 즉 적극적인 인생참여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이며 생산적 활동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의 능동적 몰입이 노인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재가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은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이 된다. 이러한 자원의 이용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노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사해보는 것은 커뮤니티케어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 등의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관한 연구결과(박은희, 2015; 김재중, 2008; 백은미, 2013; 윤지원, 2015 등)에 의하면 이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은 높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영향요인인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친구를 배제하고 가족관계를 주로 연구하거나 친구지지와 가족지지를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시켜 조사함으로써 가족과 분리된 친구 또는 이웃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어렵다.

이혜준(2017)은 가족의 역할이 상실되면서 노인의 친구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구는 가족만큼 특별한 자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사회적 지지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가족돌봄의 사회화로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친구 및 이웃의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분리시켜 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노인돌봄에서의 지역사회 의미를 밝히는 작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정혜윤과 정혜민(2016), 노준희(2014), 김희영(2013), 홍성희와 박인숙(2012), 박인숙(2011), 강신옥과 방혜선(2010) 등의 연구에서 보듯이 주로 농촌 또는 도시 노인을 대

상으로 하고 있고 농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농복합 지역의 노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노인에게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가족돌봄의 사회화로 변화된 가족과 친구 지지자원의 차이를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 노인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성의 타당성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공적 노화의 개념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의 개념은 1986년 미국노년학회에서 소개되었고 이 후 노화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홍현방, 2001). 성공적 노화는 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활동에 참여해서 적응하려는 개인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는 활동이론에 기초한 개념이다(Atchley, 2000; Mitchell, 1995). Baltes & Baltes(1991)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정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족함을 보상한다고 하였다. Rowe & Kahn(1997)은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7년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장애를 예방해야 하고,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성공적 노화의 조건에는 질병 및 장애의 예방, 신체적·정신적·인지적 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홍현방(2001)은 성공적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삶의 전반에 걸친 긍정적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서적으로 성숙해 가는 심리 발달적 과정이며, 정신이나 신체상에 질환이 없어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성혜영과 유정현(2002)은 성공적 개념에 대한 인식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중시하는 제 1유형,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목적의식을 지니는 것,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주관적 만족 및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제 2유형, 성공적 노화를 위해 복지 및 편함 추구형의 제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들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는 사회적 관계, 정신적·신체적 기능 유지, 주관적 만족, 부부관계 만족, 복지혜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고대선과 원영신(2005)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질병 피해가기, 적극적인 인생참여, 신체적 기능 유지하기가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 노준희(2014)는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인지적·심리적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고,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행위를 수행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민주(2013)는 성공적 노화를 중용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율적인 삶, 자기 완성지향, 자기수용과 같은 건강한 삶, 자녀에 대한 만족과 같은 가족과의 관계, 타인수용, 적극적 인생 참여를 포함하는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잘하는 삶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주환(2014)은 신체와 정신건강, 자기수용과 자율 및 자기통제 등의 심리적인 면과 가족관계와 주위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친밀한 관계 등의 관계적인 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성공적 노화란 정서적으로 자기 수용적 태도를 갖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생산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력 있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복지시설 등에서의 여가활동과 유급활동은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현방(2005)의 연구에서는 유급활동,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다니기, 취미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영과 한상훈(2013) 연구에서는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승훈(2010), 차경숙(2015)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참여(강신옥·방혜신, 2010)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홍현방(2005) 연구에서는 용돈, 건강이, 전상남과 신학진(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 소득, 차별경험,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었다. 전상남과 신학진(2009), 홍성희(2016)의 연구에서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정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외에 주관적 생활수준, 우울, 자존감도 삶의 질을 설명하였다.

일상생활능력도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조사되었다. 일상생활능력은 일상적 생활에서 활동가능한 정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일상생활 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유호신, 2001).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화장실 사용,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 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

리, 세탁, 청소, 전화사용, 시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고윤순과 이정숙(2009)의 연구에서는 도구적 일상생활능력과 여가만족, 교육, 연령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도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정원과 엄기욱(2015), 윤현숙과 유희정(2006), 홍현방(2002), 박경희(2006)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치관(백지은, 2008)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고, 신학진과 전상남(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이미지와 노인차별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종교, 교육,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자 한다.

3. 가족지지, 친구지지,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 및 관련 연구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의 가족, 친구 등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며 연구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정의된다. Ell(1984)은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자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구성되며 일생 동안 서로 다른 역할에 따른 의무와 상호관계의 동적인 변화에 기초를 둔 집단이라 정의하였다(오인근·오영삼·김명일, 2009에서 재인용).

사회적 관계망에는 가족 뿐 아니라 친구, 친지, 이웃도 포함되는데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이 되면 퇴직이나 가족의 상실로 사회적 관계망이 감소하지만 노인에게 가족과의 관계는 핵심적 관계이며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는 성공적 노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윤정원·엄기욱, 2015).

윤현숙과 유희정(2006) 연구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유진(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는 가족관계망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령(2008)의 노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은 성공적 노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우자 동거, 가족 동거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요인이었고 사회적 활동으로 다른 사람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 사회적 소외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희주와 주경희(2008)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가족 중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변인을 연구한 정여진과 안정신(2010)의 연구에서는 손자녀와의 가치결속,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애정결속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 외의 친구나 이웃의 사회적 지지도 노인의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송혜자(2009)는 노인의 가정 내 뿐 아니라 가정 밖 역할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윤정원과 엄기욱(2015)의 여성 노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젊을수록 수준이 높았고, 사회적 관계망의 접촉빈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가족, 친구 및 이웃 등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고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커졌다. 이미나(2016)는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참여활동, 자기개발활동, 가정 내 활동 참여로 보았고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가족의 수가 감소하고 핵가족화되어 친구와 이웃의 돌봄과 지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혜준(2017)은 노인에게 친구는 가족만큼 특별한 자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사회적 지지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는 가족의 돌봄 역할이 축소되면서 친구의 지지가 사회적 관계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로 친구 및 이웃의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가족과 친구의 관계망을 분리하여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고 돌보아진다고 믿게 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의사소통 연결망을 사회적 관계망이라 정의하고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과의 관계망과 비혈연의 친구와의 관계망으로 나누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가 정책의 방향이 되는 시대에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지역사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편의표출방식으로 선정하여 면접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300명 중 성별은 ‘여성’이 228명(76%)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70대’가 162명(54%)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농어촌’이 180명(60%), ‘도시’ 120명(40%)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교육 수준은 ‘초졸’이 117명(39%), ‘무학’이 86명(29%) 순으로 많았다.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129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음’이 183명(61%)으로 ‘없음’ 117명(39%)보다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00)

변수	범주	N(%)
성별	남	72 (24)
	여	228 (76)
연령	60대	55(18)
	70대	162(54)
	80대 이상	83(28)
거주지	도시	120(40)
	농어촌	180(60)
	무학	86(29)
학력	초졸	117(39)
	중졸	40(13)
	고졸이상	57(19)
소득	50만원 미만	129(43)
	50만원이상~70만원미만	69(23)
	70만원이상~100만원미만	55(18)
	100만원이상~	47(16)
종교	없음	117(39)
	있음	183(61)

2. 조사도구

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도구는 크게 활동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김미혜와 신경림(2005), 김정순(1988), 김동배(2008) 등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고, 노화이론 중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활동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에 관해 15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정서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 질문을 16 문항 구성하였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1점~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신뢰도 계수는 0.921, 하위영역인 활동에 관한 신뢰도 계수는 0.845, 하위영역인 정서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880이었다.

2)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상남과 신학진(2009), 정혜윤과 정혜민(2016)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체활동

을 통한 신체기능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 판단 3문항, 인지활동을 통한 인지기능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 판단 2문항, 정서활동을 통한 정서기능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 판단 2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5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을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0.820이었다.

3)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고윤순과 이정숙(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IADL) 능력을 척도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ADL) 기능에 대한 문항은 배제하였다. 교통수단 이용하기, 청소하기, 전화사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여가시설 및 공공기관 이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고 일상생활 능력의 신뢰도 계수는 0.771이었다.

4)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고윤순과 이정숙(2009), 이미나(2016)의 척도를 참조하여 가족(친인척)과 친구(이웃) 각각에 대해 연락하는 사람 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를 묻는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및 친구지지의 사회적관계망이 넓은 것을 의미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신뢰도 계수는 0.820이었다.

3.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2. 성공적 노화와 사회관계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

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3.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4.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가족지지 또는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5.0을 이용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 분석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공적 노화와 가족지지 및 친구지지의 사회적 관계망 실태

성공적 노화 및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문항 당 평균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에 3.91 ± 0.580 이었고, 하위영역인 활동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 평균점수는 3.86 ± 0.670 , 정서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 평균점수는 3.96 ± 0.610 이었다. 성공적 노화 수준은 보통보다 높았고, 하위영역 중에서는 정서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활동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 수준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4.280, p=0.000$).

정병은과 이기홍(2009)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생산 활동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노인들은 활동적인 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이 조사대상자가 되어 홍현방(2005), 지승훈(2010), 차경숙(2015) 조사에서와 같이 여가시설의 이용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나타내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합 평균은 5점 리커트 척도에 3.36 ± 0.840 으로 노인들은 4~5명의 가족 및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가족지지의 평균점수는 3.17 ± 0.910 ,

친구의 지지는 3.55 ± 1.010 로 가족지지보다 친구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118, p=0.000$). 이는 조사대상자가 여가시설 이용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친구는 가족만큼 특별한 자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관계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혜준(2017)의 주장이 지지되었다.

<표 2> 성공적 노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

변인	하위영역	M (문항당)	S.D (문항당)	대응 t검정	p
성공적 노화	활동적 영역	57.69 (3.86)	10.02 (0.670)	-4.280	0.000
	정서적 영역	59.80 (3.96)	9.50 (0.610)		
	합	(3.91)	(0.580)		
사회적 관계망	가족지지	9.51 (3.17)	2.73 (0.910)	-7.118	0.000
	친구지지	10.66 (3.55)	3.02 (1.010)		
	합	(3.36)	(0.840)		

2. 성공적 노화 및 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1) 성공적 노화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성공적 노화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다. 성공적 노화는 소득($F=6.900, p=0.000$), 종교($F=-1.852, p=0.08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43%가 월 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성공적 노화는 5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70-100만원 미만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만 높다고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원과 엄기욱(2015)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공노화수준이 높았던 것과 다른 결과였다.

〈표 3〉 성공적 노화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변수		N	M(S,D)	t/F	p	Duncan
성별	남	72	109.49(17.45)	2.333	0.601	
	여	228	114.71(16.26)			
연령	60대	55	113.02(17.34)	0.493	0.611	
	70대	161	114.30(17.06)			
	80대 이상	84	112.12(15.54)			
거주지	도시	120	115.61(15.15)	1.835	0.079	
	농어촌	180	112.02(17.51)			
학력	무학	86	111.85(15.74)	2.610	0.052	
	초졸	117	113.81(17.29)			
	중졸	40	119.60(18.38)			
소득	고졸이상	57	110.82(14.66)	6.900	0.000	a
	50만원 미만	129	109.11(17.92)			b
	50만원~70만원미만	69	114.44(15.13)			c
	70만원~100만원미만	55	120.44(14.16)			d
종교	100만원 이상	47	115.74(14.88)	-1.879	0.007	
	없음	117	111.11(18.39)			
	있음	183	114.95(15.34)	**		

*p < 0.05, **p<0.01 ***p<0.001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는 조사대상 노인의 61%가 갖고 있었고 종교가 있는 노인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다. 종교적 영성과 종교기관의 지지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정원과 엄기욱(2015), 홍현방(2002) 등의 연구에서 종교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종교적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도 소득(F=-1.879, p=0.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4). 7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관계망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노인에게 최저 소득은 성공적 노화 뿐 아니라 관계망 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0.8이상일 때,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하 또는 VIF값이 10이상이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김호정·허진, 2008).

본 조사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표 5), VIF값을 조사한 결과 다중공선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수치도 2에 가까워 회귀분석을 위한 조건이 만족되었다. 성공적 노화와 이의 하위영역인 활동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의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하였다.

〈표 4〉 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변수		N	M(SD)	t/F	p	Duncan
성별	남	72	19.94(4.94)	0.430	0.778	
	여	228	20.23(5.06)			
연령	60대	55	19.52(4.78)	2.124	0.121	
	70대	161	20.72(5.18)			
	80대 이상	84	19.52(4.82)			
거주지	도시	120	20.26(5.15)	0.552	0.257	
	농어촌	180	20.11(4.96)			
	무학	86	19.83(5.09)			
학력	초졸	117	20.30(4.96)	2.070	0.104	
	중졸	40	21.75(5.33)			
	고졸이상	57	19.30(4.70)			
소득	50만원 미만	129	18.57(4.86)	9.200	0.000	a
	50만원~70만원 미만	69	20.72(5.00)			a
	70만원~100만원 미만	55	22.24(4.65)			b
	100만원 이상	47	21.30(4.71)			c
종교	없음	117	19.94(5.21)	0.378	-0.623	
	있음	183	20.31(4.92)			

〈표 5〉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소득	종교	건강 상태	일상생활 능력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성공적 노화
성별	1										
연령	-0.099	1									
거주지	-0.226**	0.195**	1								
학력	0.517**	-0.384**	-0.473**	1							
소득	0.257**	-0.343**	-0.357**	0.496**	1						
종교	-0.143*	-0.050	-0.025	0.018	0.058	1					
건강상태	0.036	-0.248**	-0.215**	0.206**	0.322**	-0.016	1				
일상생활능력	0.068	-0.334**	-0.306**	0.312**	0.304**	0.122	0.379**	1			
가족지지	0.076	-0.131*	-0.150**	0.168**	0.299**	0.028	0.300**	0.324**	1		
친구지지	-0.110	0.080	0.111	-0.167**	0.142*	0.034	0.313**	0.191**	0.528**	1	
성공적노화	-0.129*	-0.023	-0.120*	0.028	0.204**	0.111	0.468**	0.335**	0.421**	0.543**	1

*p<0.05, **p<0.01

1)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 = -0.137$, $p = 0.010$)과 주관적 건강상태($\beta = 0.277$, $p = 0.000$), 도구적 일상생활능력($\beta = 0.120$, $p = 0.023$), 친구지지 ($\beta = 0.367$, $p = 0.000$)로 나타났다(표 6). 이들 변인이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4.9%였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친구지지였고 그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순이었

다.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성일수록,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았다.

윤정원과 엄기옥(2015)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보다 건강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성혜영과 유정현(2002)의 성공적 노화 개념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중시하는 1유형보다

주관적 만족 및 부부관계를 증시하는 제 2유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 중에서는 가족지지보다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컸다. 윤현숙과 유희정(2006), 정여진과 안정신(2010)연구에서는 자녀나 배우자의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가족보다 친구 이웃에 의지하는 노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활동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공적 노화의 하위영역인 활동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는 성별($\beta=-0.117, p=0.024$), 거주지($\beta=-0.133, p=0.010$), 주관적 건강상태($\beta=0.259, p=0.000$), 도구적 일상생활능력($\beta=0.122, p=0.019$), 가족지지($\beta=0.157, p=0.004$), 친구지지($\beta=0.310, p=0.000$)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들 변인은 활동적 성공 노화의 46.3%를 설명하였다.

<표 6>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F(p)
	B	표준오차	β				
성별	-5.747	2.202	-0.137**	-2.610	0.010	1.447	
연령	2.384	1.285	0.094	1.855	0.065	1.344	
거주지	-2.648	1.895	-0.72	-1.397	0.163	1.410	
교육	0.684	1.034	0.043	0.662	0.509	2.210	
소득	0.165	0.812	0.011	0.203	0.839	1.576	23.522
종교	2.478	1.646	0.068	1.505	0.133	1.055	(0.000)
주관적 건강상태	1.014	0.187	0.277***	5.410	0.000	1.375	
일상생활능력	0.671	0.294	0.120*	2.282	0.023	1.437	
가족지지	0.692	0.364	0.105	1.898	0.059	1.612	
친구지지	2.179	0.343	0.367***	6.356	0.000	1.749	
R	R^2		Durbin-Watson				
0.670	0.449		1.784				

* $p<.05$, ** $p<.01$, *** $p<.001$

<표 7> 활동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F(p)
	B	표준오차	β				
성별	-2.746	1.213	-0.117*	-2.265	0.024	1.447	
연령	0.041	0.707	0.003	0.058	0.954	1.344	
거주지	-2.708	1.043	-0.133**	-2.595	0.010	1.410	
교육	0.922	0.569	0.104	1.620	0.106	2.210	
소득	0.073	0.447	0.009	0.162	0.871	1.576	24.902
종교	0.944	0.906	0.046	1.041	0.299	1.055	(0.000)
건강상태	0.529	0.103	0.259***	5.131	0.000	1.375	
일상생활능력	0.383	0.162	0.122*	2.364	0.019	1.437	
가족지지	0.576	0.201	0.157**	2.871	0.004	1.612	
친구지지	1.025	0.189	0.310***	5.431	0.000	1.749	
R	R^2		Durbin-Watson				
0.680	0.463		1.731				

* $p<.05$, ** $p<.01$, *** $p<.001$

활동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지지였고 그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거주지,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거주지가 도시일수록,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이 좋을수록, 여성일수록 활동적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았다.

현대의 노인은 물러나서 쉬기보다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볼 때 이를 지원하는 친구와 가족은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친구는 가족만큼 특별한 자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이해준(201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가족지지와 더불어 친구지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정서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공적 노화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 = -0.132$, $p=0.021$)과 연령($\beta=0.157$, $p=0.004$), 주관적 건강상

태($\beta=0.201$, $p=0.000$), 친구지지 ($\beta=0.397$, $p=0.000$)로 나타났다(표 8). 이들 변인들이 정서적 성공노화를 설명하는 총설명력은 43.6%였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역시 친구지지였고 그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성별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즉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정서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었다.

노인이 정서적으로 만족스럽고 안정되려면 가족보다는 친구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의 영향력이 친구보다 낮은 것은 핵가족화로 가족과 같이 사는 노인이 적어지고 친구와의 대면적 관계가 오히려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족지지는 활동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전체 성공적 노화와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친구지지가 전체 성공적 노화와 하위영역인 활동적 정서적 노화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가족지지보다 친구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8〉 정서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F(p)
	B	표준오차	β				
성별	-2.919	1.253	-0.132*	-2.330	0.021	1.447	
연령	2.101	0.731	0.157**	2.874	0.004	1.344	
거주지	-0.284	1.078	-0.015	-0.264	0.792	1.410	
교육	-0.162	0.588	-0.019	-0.275	0.784	2.210	
소득	-0.136	0.462	-0.017	-0.293	0.769	1.576	16.250
종교	1.450	0.937	0.075	1.548	0.123	1.055	(0.000)
주관적 건강상태	0.388	0.107	0.201***	3.643	0.000	1.375	
일상생활능력	0.276	0.167	0.093	1.650	0.100	1.437	
가족지지	0.143	0.207	0.041	0.689	0.491	1.612	
친구지지	1.244	0.195	0.397***	6.379	0.000	1.749	
R	R^2		Durbin-Watson				
0.600	0.360		1.811				

* $p<.05$, ** $p<.01$, *** $p<.001$

〈표 9〉 주관적 건강상태의 친구지지와 성공노화에 대한 영향

구 분	친구지지				성공노화			
	B	표준오차	β	t	B	표준오차	β	t
성별	-0.94	0.377	-0.13	-0.249	-5.952	2.347	-0.142*	-2.536
연령	0.619	0.217	0.145**	2.852	3.732	1.350	0.147**	2.764
거주지	0.952	0.320	0.155**	2.977	-0.574	1.990	-0.016	-0.288
교육	-0.669	0.173	-0.250***	-3.878	-0.775	1.074	-0.049	-0.721
소득	0.335	0.138	0.134*	2.436	0.896	0.857	0.060	1.046
종교	0.123	0.282	-.020	0.438	2.747	1.754	0.075	1.566
생활능력	0.081	0.050	0.086	1.615	0.847	0.312	0.151**	2.717
가족지지	0.531	0.054	0.480***	9.823	1.849	0.336	0.281***	5.496
주관적 건강상태	0.132	0.031	0.214***	4.244	1.302	0.194	0.356***	6.718
	F=24.135*** R ² =0.428				F=19.058*** R ² =0.372			

*p<.05, **p<.01, ***p<.001

4. 성공적 노화에 대한 친구지지의 매개 효과

성공적 노화 전체와 하위 영역인 활동적·정서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지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성공적 노화를 보였다.

성공적 노화와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지지의 관계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친구지지에 대한 영향과 성공노화에 대한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표 9).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친구지지가 매개변수가 되었을 때 β 값이 0.356에서 0.214로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성공노화와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는 Z값이 4.39(p<0.000)으로 절대값이 1.96보다 크므로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표 10). 노인이 건강하면 친구와의 교류가 많아지고 친구의 지지가 성공적 노화를 이루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려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돌봄 제공자가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충분하지 않다. 가족은 여전히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생계비를 제공하는 돌봄의 주체이지만 핵가족화와 자녀수의 감소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축소되는 가족지지를 대신하여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친구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검정

구 분	B	SE	Z	p
주관적 건강상태 → 친구지지	0.132***	0.031	3.53	0.000
친구지지 → 성공적 노화	2.179**	0.34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자원경영학의 관점에서 노인에게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사회적 관계망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노인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 종교, 전통적 가치관, 가족관계, 일자리 참여, 사회적 관계망 등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다루었다. 노화에 영향 요인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가족의 역할이 감소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증가하는 시대에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분리하여 영향력을 비교해 본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5점 척도에 평균 3.91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정서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활동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 수준보다 더 높았다. 최해경(2013)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정서적 지지가 클수록 성공적인 노화수준이 높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노인시설 이용은 정서적 지지를 높여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공적 노화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공적 노화는 경제수준에 비례하지 않았지만 저소득 노인의 성공적 노화수준은 가장 낮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도 소득이 낮은 노인은 유의하게 낮았다. 소득은 성공적 노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최저 소득은 성공적 노화의 낮은 수준,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이 있으므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책은 저소득 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친구지지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성일수록,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활동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는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거주지가 도시일수록,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이 좋을수록, 여성인 경우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았다. 정서적 영

역에서도 친구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인 경우 정서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고 있었다. 친구지지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의 주요 영향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이혜준(2017)의 주장처럼 개별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이면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넷째, 성공적 노화와 친구지지,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에서 친구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건강하면 친구와의 교류가 많아지며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만족스런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족지지는 활동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과의 대면적 관계보다 친구나 이웃과의 대면관계가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유계숙·김제희, 2017)에 따르면 여전히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노인 돌봄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이 아동중심에서 노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친구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족지지는 성공적 노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활동적 영역에서만 친구지지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의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은 무엇보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계숙과 김제희(2017) 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는 부모 간병을 각각 `효도` 항목 1순위로 꼽았다. 박주희(2017)조사에서 노인을 부양

하는 가족부양자의 부담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부담이 높았다. 가족부양자의 가족의 수발 기능이 사회화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은 노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생활비를 제공한다. 사회적인 부양이 가족의 노인부양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저소득계층의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2018년 4월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209,960원, 부부가구는 335,920원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2018). 노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으면 가족의 보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핵가족화와 자녀수의 감소로 가족의 관계망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는 자녀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가장 원하고 있다(유계숙·김제희, 2017). 박인숙(2011) 연구에 따르면 노인과 자녀 간의 상호 지원에서 성공적 노후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서적 지원이었다. 특히 여성노인은 성공적 노후를 가족관계에서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성희·박인숙, 2012).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지역사회에서 보완하고 대체해줄 수 있다 해도 노인들의 가족에 대한 정서적 욕구는 커뮤니티케어 시대에도 고유한 것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인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은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강조하는 커뮤니티케어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8). 본 연구의 결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므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족지지보다 친구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로 볼 때 노인복지 정책이 커뮤니티케어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008년의 박현식 연구에서도 친구나 이웃의 지지는 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친구나 이웃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이제는 가족

의 지지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족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애정과 돌봄을 지역사회의 친구나 이웃이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려면 관계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돌볼 수 있도록 친구와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강신옥·방혜선(2010).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 : 충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9, 287-310.
- 2) 고대선·원영신(200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 24, 413-424.
- 3) 고윤순·이정숙(2009).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농촌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여가만족 및 성공적 노화. 노인간호학회지, 11(2), 226-235.
- 4) 박인숙(2011). 노인의 자녀와의 상호간 지원 교환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07-127.
- 5) 김동배(2008).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6)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7)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8) 김재중(200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9) 김정순(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김정영·한상훈(2013).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심리적 안녕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교육연구논총, 34(2), 179-208.
- 11) 김호정 · 허전(2008). 한글 SPSSWIN 14.0 통계 분석 및 해설. 서울: 삼영사.
 - 12) 김희영(2013). 농촌지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 심리적 특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김희주 · 주경희(2008). 한국적 노후 성공적 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13), 125-158.
 - 14) 노준희(2014). 농촌거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박경희(2006).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박은희(2015).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이통합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박주희(2017).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자를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121-139.
 - 18) 박현식(2008).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이 사기(morale)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27-139.
 - 19) 백은미(2013).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백지은(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한국노년학, 28, 227-249.
 - 21)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원(2018). <http://www.bokjiro.go.kr>.
 - 22) 서울시복지재단(2018). <http://www.welfare.seoul.kr>.
 - 23) 성혜영 · 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75-93.
 - 24) 송혜자(2009). 노인의 역할수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신유진(2009). 노인의 비공식적 지지망 기능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신학진 · 전상남(2009). 노인의 이미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6, 165-187.
 - 27) 오인근 · 오영삼 · 김명일(2009).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관 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14(1), 111-130.
 - 28) 유계숙 · 김제희(2017).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 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 보건사회연구, 37(1), 216-252.
 - 29) 유호신(2001). 전국 법정복지대상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치매와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1(1), 139-149.
 - 30) 윤정원 · 엄기욱(2015). 여성노인의 긍정적 사회관계망 기능이 사회적관계망 접촉빈도와 성공적 노화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69, 171-192.
 - 31) 윤지원(2015).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과 성공적 노화 인식의 관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윤현숙 · 유희정(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33) 이미나(2016).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이민주(2013).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5) 이주환(2014). 노후 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자이존증감의 매개 효과. 대한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6) 이혜준(2017). 도시 초고령 노인의 친구관계의 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전상남 · 신학진(2009).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4), 1383-1396.
- 38) 정병은 · 이기홍(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327-1340.
- 39) 정여진 · 안정신(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35-550.
- 40) 정혜윤 · 정혜민(2016). 농촌노인의 지각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건강증진 행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 2167-2181.
- 41) 지승훈(2010). 노인의 여가활동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2) 차경숙(2015).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3) 최혜경(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수준과 예측요인. 사회과학연구, 24(1), 193-217.
- 44) 통계청(2018). <http://www.index.go.kr>.
- 45) 홍성희 (2016). 노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89-108.
- 46) 홍성희 · 곽인숙(2012). 베이비부머세대의 성공적 노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69-92.
- 47) 홍현방(2001). 성공적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8)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45-259.
- 49) 홍현방(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50) Atchley, R. C.(2000). Social forces and aging. Belmont, CA: WadsworthThompson Learning.
- 51) Baltes, P. B. & Baltes, M. M.(1991). Successful ageing perspective from the behavior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2)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 A review. The Social Service Review, 58(1), 133-149.
- 53) Mitchell, B. A.(1995). Successful aging: Integrating contemporary ideas,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54)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투 고 일 : 2018년 08월 16일
- 심 사 일 : 2018년 09월 14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11월 06일